

요 약

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3분기 연속 오름세

- 2017년 4/4분기 서울의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표준화지수 기준 103.3으로 전 분기 대비 1.0p 상승해 3분기 연속 오름세
-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2013년 4/4분기(102.0) 이후 2017년 2/4분기에 처음 기준치(100)를 넘어선 이래 3분기 연속 100 이상을 기록
- 그러나 2017년 2/4분기 이후 「소비자태도지수」의 개선 속도는 북한 리스크가 여전하고, 일자리 문제 등 민생문제가 아직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다소 정체된 모습
- 4/4분기 서울의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2.1p 오른 88.2를 기록해 3분기 연속 상승한 반면,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전 분기보다 0.4p 하락한 97.9를 기록
- 1년 후 가계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본 이유는 '가계소득 감소'가 35.5%로 가장 많고, 그다음은 '지출비용 증가 예정' 18.3%, '경기 불황' 18.2% 등의 순

서울시민들이 본 2018년 경제 이슈 1위는 '청년실업 및 고용문제'

- 2018년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서울시민이 응답한 1~3순위를 합제한 결과, '청년실업 및 고용문제'가 46.4%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
- 그다음은 '생활 관련 물가상승'(32.6%), '부동산 경기'(31.2%), '최저임금 인상'(25.8%), '가계부채 증가'(24.7%), '저출산/고령화 문제'(20.0%), 소득 양극화(18.8%) 등의 순으로 응답
- 각 경제 이슈가 내년에 올해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다수 시민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
- 기준치(100)를 웃도는 이슈는 '중국과의 관계', '에너지 정책', '4차 산업혁명 대응'의 총 3개에 불과하고, 나머지 9개 이슈는 기준치를 밑돌아

-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는 경제 이슈는 '중국과의 관계'이고, 가장 개선이 안 될 것으로 보는 경제 이슈는 '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'로 조사

전문가들이 본 2018년 경제 이슈 1위도 '청년실업 및 고용문제'로 시민 조사결과와 동일

- 2018년 주요 경제 이슈 3개를 꼽았을 때, '청년실업 및 고용문제'의 응답률이 58.9%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
- 그다음은 '최저임금 인상'(34.2%), '가계부채 증가'(30.1%), '중국과의 관계 개선'(28.8%), '4차 산업혁명 대응'(26.0%), '지방선거'(23.3%), '부동산경기'(20.5%) 등의 순으로 조사
- 2018년에 각 경제 이슈가 2017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다수 전문가 는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
- 12개의 경제 이슈 중 기준치(100)를 웃도는 이슈는 '탈원전·탈석탄 등 에너지 정책' '중국과의 관계' 등 2개에 불과하고, 나머지 10개 이슈는 기준치를 밑돌아
-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 경제 이슈는 '탈원전·탈석탄 등 에너지 정책'이고, 가장 개선이 안 될 것으로 본 경제 이슈는 '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'로 조사

전문가들은 2018년 경기가 현상 유지 내지 상승으로 예측

- 경기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40.5%로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비율(20.3%)의 2 배 수준이었고,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비율도 39.2%로 높은 편
- 1년 전 전문가 조사에서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81.8%이고,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5.5%인 것과 비교할 때 대조적
- 2018년 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보는 요인의 키워드 분석을 한 결과, '중국과의 관계 개선'과 '중앙정부 정책'이 가장 많이 언급
- 전문가들이 본 2018년 경기 하락의 주요 키워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하락 등
- 전문가들이 본 2018년 경기 현상 유지의 주요 키워드는 수출증가 속 내수부진 등

이제는 일상화된 청년층의 취업준비 활동

- 취업 준비 시간은 '20시간 이상'이 37.7%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
 - 그다음은 '5시간 미만' 24.5%, '5시간 이상~10시간 미만' 22.6%, '10시간 이상~20시간 미만' 15.1% 등의 순으로 조사
- 취업 준비 비용은 한 달 평균 18.9만 원 수준이고, 평균 구직활동은 대부분 3개월 이상
 - 취업 준비 비용은 청년층의 한 달 평균 생활비(65.6만 원)의 28.8% 정도
 - 평균 구직활동 기간은 '한 달 이내'가 28.3%로 가장 많지만, '3~6개월', '6~12개월', '12개월 이상'이 각각 20.8%를 차지해 실질적으로 '3개월 이상'이 62.4%를 차지
- 청년들은 주로 아르바이트 위주로 경제활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
 - 아르바이트가 84.6%로 가장 많고, 그다음은 인턴(48.1%), 과외(42.3%), 교내업무(17.3%), 기타 경제활동(1.9%) 등의 순으로 조사
 - 경제활동 시 월평균 소득은 '70만 원 이상'이 36.5%로 가장 많고, 그다음은 '30만 원 이상~50만 원 미만'(34.6%), '50만 원 이상~70만 원 미만'(21.2%), '30만 원 미만'(7.7%) 등의 순
 - 경제활동 시 주당 근무시간은 '5시간 이상~10시간 미만'이 34.6%로 가장 많고, 그다음은 '20시간 이상'(28.8%), '10시간 이상~20시간 미만'(26.9%), '5시간 미만'(9.6%) 등의 순으로 조사
- 청년들이 회사를 결정할 때 주요 고려사항은 연봉과 업무내용
 - 회사를 결정하는 주된 사유로 '연봉'과 '업무내용'이 각각 57.4%, 51.9%로 매우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
 - 청년들은 입사지원 정보를 '온라인 구직 사이트'에서 얻는다는 응답비율이 69.2%로 가장 많고, 그다음은 관심업종 및 회사 직접 검색(36.5%), '취업 관련 카페 및 스터디 모임'(34.6%), '학교'(32.7%) 등의 순

관광분야 매출은 연말 특수로 인해 전 분기보다 상승

- 전 분기 기준(100)으로 본 명동 관광특구의 2017년 4/4분기 매출 수준은 약 130으로 상승하였고, 특히 화장품업체의 매출 상승세가 뚜렷
 - 사드사태가 진정되면서 중화권 관광객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고, 동남아 및 일본 관광객 등이 늘어나면서 전 분기보다 매출 증가
 - 임대료 부담 등으로 전 분기에 심각했던 폐점 위기는 2017년 4/4분기 들어 다소 진정
 - 상인들은 크리스마스 및 연말 특수보다 2018년 구정(중국 춘절 기간) 이후 중국 관광객의 방문 증가를 크게 기대하는 모습
- 동대문 관광특구의 2017년 4/4분기 매출은 전 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105~110 수준
 - 동대문 상권의 주요 매출 대상이었던 중국 바이어 대상 의류 도매업은 여전히 부진한 반면, 내국인 위주의 의류 소매업이 인근 대기업 쇼핑몰 입점 등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매출이 다소 신장
 - 동대문관광특구는 단체관광객보다 일본, 중화권, 동남아 개별관광객 증가가 큰 편
- 전 분기 기준(100)으로 본 잠실송파 관광특구의 4/4분기 매출은 95 수준으로 하락
 - 10월과 11월에 백제문화제와 석촌호수 낙엽거리축제 등으로 다소 활기를 보였지만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내국인의 외부 활동 부진 등으로 소비가 감소
- 관광특구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발굴이 요구
 - 바가지요금 및 불친절, 강매 등의 근절과 함께 좋은 재료와 상품을 판매하여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특구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원 간 협력이 요구
 - 임대료의 상승 억제 및 다양한 상권 구성을 위해 건물주와 주변 관계자가 함께 노력할 필요
 - 지자체, 상인, 기업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관광특구의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늘려서 쇼핑만이 아니라 여가도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